

# 휘발유 따라잡는 '경유' 가격... 화물차 업계 '한숨'

우크라이나 여파 국제 경유가격 급등  
한달새 20%이상 올라 1900원대  
정부, 유류세 20% 인하 연장으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 연료 효율이 좋은 디젤 차량의 장점이 없어졌네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 가격 역시 요동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경유 가격이 하고 있는 데다, 휘발유 가격을 턱밑까지 쫓아오는 등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디젤 차량 운전자는 물론, 화물·운송업계의 부담마저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0.33원 더 오른 l 당 1919.48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2008년 7월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이다. 이날 광주지역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은 1891.69원으로 불과 한 달전(2월26일) 1568.72

원에 비해 l 당 322.97원(20.58%)이나 올랐다. 전남 역시 경유값이 1903.32원으로 한달 새 328.15원(20.83%) 증가했다. 무엇보다 광주·전남 휘발유 가격이 현재 각각 1976.31원, 1990.09원이라는 점에서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는 84.62~86.77원에 불과하다. 통상 국내 경유 가격은 유류세 차등 적용의 영향으로 휘발유보다 200원 가량 저렴했는데, 최근 경유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면서 휘발유와의 가격 차이가 좁혀진 것이다. 대한석유회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낮추고 생산을 줄이면서 유럽지역의 경유 재고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이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제시장에서 경유 주문이 폭증해 공급 부족현상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대(對)러 제재 차원에서 미국이 최근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 국제 유가가 한 차렷 뛰었고, 이어 유럽연합(EU)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제 경유 가격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유 수입량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경유는 디젤 차량 외에도 화물차량이나 택배 트럭 등 상용용 차량, 굴착기, 레미콘 등 건설장비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점에서 관련 업계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전라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경유 가격이 2020년 5월 1068원대였던 것에 비해 현재 두 배 가까이 오름 셈이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해 직원을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경유값 폭등으로 더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내 경유 가격 상승세는 국제 경유 가격 상승 추이를 고려하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가격은 이번 주 배럴당 112.1달러로 전주보다 8.2달러 오르는 등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당초 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시 이론상으로 l 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와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제재 등으로 경유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27일 광주 서구의 한 주유소 유가 정보판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공시되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이틀 연속 1만명 밀돌아...전남은 옛새째 1만명대 확진자

연령대 관계없이 무차별 감염세  
전국 31만여명 확진 사망 282명  
광주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이틀 연속 1만명을 밀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지난 21일부터 옛새째 1만명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이날 0시 기준 8933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광주 누적 확진자는 32만921명으로 늘어났다. 관내 요양병원, 학교 시설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쏟아졌다. 앞서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909명으로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는 1만명을 밀돌았다. 연령대별 신규 확진자는 10대 미만 1098명, 10

대 1200명, 20대 1188명, 30대 1113명, 40대 1323명, 50대 1127명, 60대 이상 1884명 등으로 연령대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27일 0시 기준으로 신규확진자 1만2294명이 나왔다. 이로써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31만8427명이 됐다. 의료기관에서 진행된 검사에서 양성자 7438명(60.5%)이 나왔고 유·초·중·고교에서 2732명(22.2%)이 확진됐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서 287명(2.3%)이 신규 확진됐다. 전남 역시 연령대별 확진자 규모는 큰 차이가 없었다. 시군별로는 순천 2291명, 여수 2269명, 목포 2075명, 광양 1061명 등 4개 시에서 네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국에서는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1만8130명이 발생했다. 국내 확진자는 누적 1181만5841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는 전남(33만5580명)보다 1만7450명 줄면서 지난 24일(39만5568명) 이후 나흘 연속 30만명대로 집계됐다. 26일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282명으로 파악됐다. 직전일(23일)보다 41명 적다. 사망자 282명을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1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대 68명, 60대 28명, 50대 6명, 40대 2명, 20대 1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1만4899명이고 누적 치명률은 0.13%로 나타났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국제안전도시 제공인...자살 예방 프로그램 호평

광주시가 '국제 안전도시'로 다시 공인받았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제 안전 도시 공인센터 (ISCCC-International Safe Community Certifying Center)는 최근 서면-온라인 심사를 거쳐 광주를 국제 안전 도시로 최종 재공인했다. 광주시는 2016년 첫 공인 이후 5년간 성과를 토대로 재공인을 신청, 지난 24~25일 온라인 심사를 받았다. 심사에서는 8개 분야 ▲총괄보고 ▲손상감시체계 ▲비의도적 손상(교통안전, 낙상예방) ▲의도적 손상(자살과 폭력예방) ▲안전전증진 우수사례 ▲장기발전 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심사위원장은 데일 헨슨 ISCCC 의장은 총평에서 “광주가 ISCCC의 7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도시를 구축했음을 확인했다”며 “시민들의 폭넓은 활동 참여, 자살·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도시재생과 연계된 안전 환경 개선 사업 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5년간 추가 공인하는 인증서를 받아 상반기 중 국제 안전 도시 재공인 선포식을 열고 관련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현재 ISCCC가 정한 7가지의 기준에 따라 공인을 획득한 국제 안전 도시는 43개국, 433개 도시에 이른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국제안전도시 제공인을 계기로 각 분야별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시정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한 광주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강경화, ILO 사무총장 낙선...토고 출신 질베르 후보 당선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도전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고배를 마셨다. IL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차기 사무총장 선거 2차 투표에서 토고 출신의 질베르 후보 국제노동개발기금(IFAD) 총재가 당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함께 출마한 강 전 장관의 도전은 아쉽게도 두 번째 관문에서 막을 내렸다. ILO 사무총장 선거는 후보자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적은 득표를 한 후보자를 제외하면서 계속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강 전 장관은 예상대로 1차 투표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지만, 그 다음 투표에서 아프리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넘지 못했다. 선거 운동 기간 강 전 장관은 유엔에서의 오랜 근무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웠으나, 국내 노동계의 전

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강 전 장관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제 노동계에 전달했다. 이번 선거에는 두 사람을 포함한 모두 5명이 출마했다. 아프리카 출신인 ILO 수장 자리에 오르는 것은 후보 당선자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입야**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8902-7900

**금매·교환**  
하실분. 010-3605-5000

## 전남도, 기후변화 대응 5년간 1조6천억 투입

전남도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도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1조6000억원을 들여 건강, 산림·생태계 등 6개 부문 5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외부 전문가와 도 관련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라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최근 개최했다. 보고회는 용역 수행사인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용역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외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위원 등의 질의응답과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와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용역 착수 이후 기후변화 적응대책 27명 전문가 설문조사, 도 23개 사업담당부서와 협의 등 활동을 펼쳤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대비를 위해 물관리, 농수산, 산림·생태계, 건강, 산업·에너지, 국토·연안, 6개 부문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미래 기후를 예측해 기후리스크를 도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워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은 전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부동산매매

담양 월산면 4차선도로변  
계획관리 대지  
4,200㎡, 4층건물, 2층가든  
→ 매가 15억원  
영암 신북면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전, 임야  
11,000㎡ 현재 감나무과수원  
→ 매가 5억원  
나주시 오량동  
농공단지 공장용지  
3,500㎡, 냉동창고 660㎡, 창고 330㎡  
→ 매가 11억원  
군산시 수송동 지하1층  
지상6층 대지  
840㎡, 매디칼상가, 보10억  
월 3200만원 (부가세, 관리비포함)  
은행45억원포함  
→ 매가 68억원 (현금 13억원)  
화순 도곡면  
전원주택단지  
약 7,400㎡, 전철조성됨, 12필지  
→ 매가 20억원  
해남읍 사찰, 임야  
전 36,000㎡ 건물6동  
납골당1500기  
→ 매가 10억원  
동구 자산동 조대후문  
벽자골목 상가주택  
지하1층 지상3층  
→ 매가 7억5천만원  
2,900㎡, 건물7동 있음  
→ 매가 66억원  
계묘계리 한마음부동산 010-2314-8567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시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연번	위치	기수 무연묘
1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원리 산-1	무연묘 1번~5번까지

2. 분묘개장: 무연묘 1기 4기  
3. 개장서류: 개인 재산권 관련 행사  
4. 개장주소: 장성군 북이면 풍암리 061-393-0985  
5. 납골당 안착기간: 안착일로부터 10일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방법: 공고기간 만료 후 화장하여 납골당  
8. 연 락 처: 전남 장성군 북이면 4가 사당길 6  
전화번호 010-3659-1652  
9. 연락방법: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호적), 제적,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0. 신고방법: 장성읍매지1와1차2차·광주묘1와1차2차·공도매장묘·고양 효장묘·개발·재보·백령 묘 매장 2022년 3월 28일  
공고인: 박영철 (010-3651-4108)

70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광주일보  
·지국내·  
북구 · 동 266-1920 · 문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동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영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안 222-9054  
· 중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을 651-1833  
· 북 선 673-6836 · 송 화 675-6606  
· 전 열 671-7276  
서구 · 권 장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흥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2-2900 · 하 남 955-0451  
· 광 선 944-0444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